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지상 설교

청년아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1 - 17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본문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영적으로 죽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외치십니다.

1. 영적으로 죽은 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준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한 사람은 그를 낳고 키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나를 위해 울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만 한편으로 나로 인하여 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지는 못할지언정 근심거리가 된다면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감을 받고 존경받는 청년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슬픈 일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고 해도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근심에 잠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청년에게는 비전도 없고 바른 국가관도, 인생관도 없고 역사 의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참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참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하여 죽은 생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영혼의 기쁨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고, 물질이 풍족해도 다시 회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몰어야 할까요?

나인성 과부에게는 아들이 큰 위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지평이었습니다. 그녀는 반짝이는 별과 같이 희망이었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어둠 속에서 몰아야 했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젊은이는 우리들의 희망이며 위로이고, 이 민족의 미래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헤매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나인성 과부와 같이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죽은 자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가 마치 죽은 자와 같아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부모와 대화를 단절하며 산다면 부모는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더욱 슬픈 이유는 자기의 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간다고 해도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 안타깝기 그지 없었겠는데 허물며 지옥으로 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2. 이 같은 슬픔을 씻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를 하러 가는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으로 향하는 행렬이 슬픔의 행렬이라면 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행렬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모든 상황을 보셨습니다. 장례행렬에서 가장 슬퍼하는 자를 찾아내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시며 그녀의 슬픈 상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죽은 자에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예수님은 청년을 살리신 후 선교사가 되라거나 목사가 되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보내시어 먼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형제에게 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으므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행렬을 멈추게 하신 후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관을 들고 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기적은 순종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코나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은 살아 있는 것 같으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곧 죽을 사람들이요 영원히 멸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요5:21).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다시 살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아들이 다시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도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마치 살아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듯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청년아 일어나라"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청년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청년에게는 새 생명과, 새 느낌과, 새 사랑과 새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3.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청년은 생명을 얻은 후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도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산 차라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고백하고 증거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15절).

예수님은 청년을 살리신 후 선교사가 되라거나 목사가 되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보내시어 먼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형제에게 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16-17절).

나인성 과부의 아들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나 자신으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빛찬양대 야외수련회를 다녀와서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원복순 권사(2교구)

나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시편 71:14)

주일 날 우리 은빛 찬양대원들이 찬양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할독하는 이 말씀에 너무 많은 감사가 넘칩니다. 깊어가는 가을 하늘과 두둥실 떠다니는 흰 구름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소녀시절도 돌아간 것 같이 즐거워하시는 은빛찬양대원들, 주님이 가르쳐주신 참사랑을 오늘 이 순간에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작은 입술로 감사 찬송 드립니다.

교회에서 사명자 대회 기도를 10시에 마치고 난 후 버스 2대로 용문산으로 향했습니다. 12시쯤 도착해서 구피에 당기는 산골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니 우리들의 입이 즐거워 찬양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식사 후에 찬양대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팀, 일타누엘 팀, 호산나 팀으로 나누어 각 팀에서 경쟁한 대

장을 세워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 하였습니다. 3년간 찬양대를 하면서 익히고 간직하였던 실력을 발휘하여 맹렬한 경쟁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3팀 모두가 99점을 받아 높은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경연대회를 마치고 사진촬영도 하였습니다. 돌아오기 전 함께 서울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오늘도 주관하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울교회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은 교회와 국가 가정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적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명자 대회에도 열심을 내어 참석하여 주셔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곁에서 뵈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우리들은 나의 갈 길, 의로운 길 다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기를 소원하며 서울교회와 함께 우리 은빛 찬양대가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사명자 대회-24시간 연속 기도

이 늙은 여종은...



나옥녀 권사(11교구)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이 늙은 여종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기에 그토록 몸부림치시는 목사님을 위해 이 늙은 여종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들과 딸들이 살고, 사랑하는 손주들이 사는 이 나라를 위해 이 늙은 여종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폐허에서 복음의 국가로 세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는 어느새 잊었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곤두박질 치며 음부로 내려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이 늙은 여종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행자자 하며 허탄한 삶을 살았나이다.

이제야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보좌까지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심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서울교회에 가득히 차고 넘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기까지 이 늙은 여종은 무릎이 닳도록 뺨을 갈아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참석하며...

진리의 울림이 있는 교회



김인호 목사
(교회갱신연구원 동문)

문화가 발달되고 살기가 좋아졌다는데 들리는 소리는 온통 중병이 걸렸다는 소리요 못살겠다는 소리요 죄 짓는 소리뿐입니다. 하루살기가 겁이 납니다. 자고나면 들리는 소리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소리요 다투는 소리요 자살했다는 소리뿐입니다.

샘이 말라버렸습니다. 단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땅이 메마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말라버렸습니다.

맑은 샘, 새 하늘의 가슴을 가진 사람이 그림습니다. 정겨운 사람이 그림습니다. 그 옛날 황금물결이 출렁이는 고향들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종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추수한 곡식 탄을 끌어안고 함박미소를 짓는 농부의 모습이 그림습니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미소, 진솔한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맑고 깨끗한 종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종은 울려야 합니다.

다. 아름답게 울려야 합니다. 배후적으로 울려야 합니다. 울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진리의 추가 심령을 두드려 아름답게 울리는 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의 주를 맞아 불처럼 비람처럼 타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은혜의 향기가 바람처럼 멀리멀리 울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울림이, 이 생명의 울림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얼굴을 변화시키고 언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소망의 울림이 사람들의 가슴을 감격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 하늘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 그대로 세상에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감격 그 감격 그대로 세상에 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때서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보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변화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울교회!
그렇습니다. 위기와 혼돈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두움을 밝히고 소망을 주는 서울교회, 그리고 목회자 신학세미

나! 여기 진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현장에서 지켜있는 목회자들에게 월요일마다 진철한 언어와 아름다운 겸손으로 교은 한복을 입고 반갑게 맞아주는 향기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직하게 맞아주시는 장로님들, 따스한 차를 준비하며 아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늘 정성을 담아 내어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환한 미소로 접수와 안내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늘 주옥같은 시편강해로 목회에 지친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진리를 맞보게 하시는 이 좋은 목사님.

말라버린 인간성, 경시되는 인권, 무너져버린 윤리와 도덕성, 이것이 이시대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기 매혹의 종소리가 있습니다. 여기 세상을 깨우는 종소리가 있습니다. 여기 죄악의 밤을 깨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 생명과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새 하늘의 종소리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이 오염된 세상을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소리로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